



한국고전문화연구원

| 우리를 위한 오늘 모두를 위한 내일 |

Newsletter

2023년 / 10월 4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 일정

- 10월 24일(화) 16시: 사무국 주간회의
- 10월 28일(토) 16시: 58차 문화강좌

■ 연구원 소식

★ 2023년 5차 문화강좌 안내 ★

“한국독립영화의 역사”를 주제로 이정욱 감독님을 모시고 2023년 5차 문화강좌를 진행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가대상 : 연구원 회원 및 동반자 (선착순 25명)
- 일 시 : 2023. 10. 28(토) 16:00~20:00
- 장 소 :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
- 행사문의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사무국(063-286-3005), 박애스더 간사(010-3408-0128)

참석을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원 유선전화(063-286-3005)나 박애스더 행정 간사(010-3408-0128)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 DMZ 걷기, 첫 번째 이야기

그림이면 그림, 글이면 글, 차고 넘치는 재주를 모두에게 나눠주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우리 연구원 유영봉 모악회 회장님께서 2021년 11월부터 진행중이신 DMZ 걷기 대장정 이야기를 연재합니다. 이 기록은 COVID-19 아직 기세를 부리던 2021년 1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한번 중단한 다음 매달 남긴 기록입니다. 사단법인 DMZ생태관광협회에서 주관하는 이 걷기 대장정은 24년 8월까지 총 32회로 예정되어, 현재진행형입니다. “DMZ 걷기 기행 ” 연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유영봉(연구원 모악회 회장 / 前 전주대학교 교수)

경기평화누리길 제1구간 ‘염하강철책길’

대명항→덕포진→쇄암리 쉼터→고양리 쉼터→문수산성 남문(14km)

대명항 입구에서 내렸다. 비릿한 내음이 물씬 풍긴다. 몇 척의 배들이 바다에 뗏다. 포구의 곳곳이 횃집이다. 새우가 잘 잡히는 곳인가? 대하구이 가게들도 군데군데 고개를 내민다.

아, 강화! 종일 끼고 걸어야 할 강화도가 초지대교의 건너편에 길게 누웠다. 저기 저곳이 마니산이던가?



서울 쪽에서 흘러온 한강은 오두산통일전망대 앞에서 임진강을 만난 다음, 강화도 방향으로 빠져나와 마침내 서해와 만나게 된다. 그런데 이 물줄기는 단번에 바다로 나가지 못한다. 강화도에 막혀 연미정燕尾亭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돌로 갈라진다. 한쪽은 강화도와 김포를 가르며 남쪽으로 내려가고, 다른 한쪽은 강화도와 이북의 개풍군 사이를 비집고 서북쪽으로 돌아 예성강을 만난 뒤, 연평도를 바라보며 바다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강화도와 김포시 사이에는 폭 좁은 해협이 만들어졌으니, 얼핏 보면 마치 잔물이 흐르는 강물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소금 '염鹽'이란 글자와 물 '하河'란 글자를 써서 이곳을 염하鹽河라고 부른다.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이다. 고려 시대부터 진행된 간척사업 때문이다. 강화도는 1232년 고려 고종 때에 몽골의 침입으로 30년간 수도首都의 역할을 했으며, 구한말에는 우리나라에 침입하고자 하는 외세의 표적이 되었던 곳이다.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이었다. 염하의 폭은 아주 좁다. 그래서 물살이 세고, 소용돌이 역시 거세다. 명량대첩의 격전지인 울돌목과 같은 모양새로, 이곳의 지형과 물살에 익숙하지 않은 배들은 이곳을 통과하기가 아주 어려웠다. 게다가 갯벌이 많아 정박하기도 쉽지 않으니, 몇 개의 항구만 지키면 되는 곳이다. 아울러 주변에 산과 절벽까지 많은 형세라서, 양안兩岸의 돈대墩臺에서는 상대의 움직임을 간파하기에 아주 쉬웠다. 그리하여 조선과 서구 열강의 마찰은 병인양요·신미양요·운요호 사건 등으로 역사 속에 드러났다.



대명항은 '평화누리길'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김포함상공원이 바다 쪽에 펼쳐졌으니, 이곳은 경기도 김포시가 분명하다. 이곳은 또 '손돌목'이라고 특정되기도 한다.



아치형 문을 지나 첫걸음을 열었다. 사단법인 경기DMZ생태관광협회가 주관하는 행사다. 왼쪽으로 철책이 멈추지 않는데, 그 철책을 따라 걸어야 한다. 그런데 이쪽 서부전선의 철책은 방어용 벙커가 함께 이어진다. 중부나 동부전선과 달리 이곳은 비무장지대나 민간 인 출입통제선이 없어서, 바다와 강을 사이에 두고 곧바로 대치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행들의 행로는 상당 부분 옛 초소들의 교통로와 중첩된다.



먼저 손돌묘에 들렀다. 손돌은 고려말 몽골 침입의 여파로 목숨을 잃은 뱃사공의 이름이다. 손돌목의 뱃길이 얼마나 어려운 곳인가를 넌지시 일깨워주는 전설이 남았으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몽골의 침입으로 고려의 왕이 강화로 피난할 때의 일이다. 손돌이란 뱃사공이 왕과 그 일행을 위해 배를 띄웠다. 손돌은 안전한 물길을 골라 초지草芝의 여울 쪽으로 배를 몰았다. 마음이 급했던 왕은 손돌이 자신을 해치고자 배를 다른 곳으로 몬다고 여겼다. 왕은 부랴부랴 시종하던 신하에게 손돌의 목을 베도록 명하였다.

이때 손돌은 자신이 죽더라도 배 안에 있는 표주박 하나를 반드시 물에 띄우라고 청하였다. 그것을 따라가면 쉽게 몽골 군대를 피할 수 있는 한편, 험한 물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손돌이 죽자, 몽골의 군사들이 곧바로 뒤쫓아왔다. 왕과 일행은 손돌의 말대로 표주박을 띄워 무사히 강화도로 들어갈 수 있었다. 후일 왕은 손돌의 충정에 감복해 무덤을 만들어 주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 그의 영혼을 위로하였다.

손돌이 억울하게 죽은 날은 10월 20일이었다. 그 뒤로 이날만 되면 손돌의 원혼은 추운 바람으로 불어왔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를 '손돌바람'이라 이름 짓고, 이 여울목을 '손돌목'이라고 불렀다. 그 후 어부들은 이날이면 바다로 나가는 일을 삼갔고, 평민들은 겨울옷을 비로소 마련하였다.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